

新编韩国概况

xinbianhanguogaikuang

崔羲秀 编著



新编韩国概况

xinbianhangugogaikuang

崔羲秀 编著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新编韩国概况/崔羲秀编著.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13. 5

ISBN 978 - 7 - 5634 - 5611 - 6

I. ①新… II. ①崔… III. ①朝鲜语 - 阅读教学 - 教材

②韩国 - 概况 IV. ①H559. 4: K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3) 第 102208 号

新编韩国概况

编著: 崔羲秀

责任编辑: 宋昌洙

封面设计: 金胜铉

责任校对: 金哲浩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 977 号

邮编: 133002

网址: <http://www.ydcbs.com>

E-mail: ydcbs@ydcbs.com

电话: 0433 - 2732435

传真: 0433 - 2732434

发行部电话: 0433 - 2133001

传真: 0433 - 2733266

印刷: 三河市明华印装厂

开本: 710 × 1000 毫米 1/16

印张: 18.75 字数: 384 千字

印数: 3000

版次: 2013 年 7 月第 1 版

印次: 2013 年 7 月第 1 次

ISBN 978 - 7 - 5634 - 5611 - 6

定价: 36.00 元

차례

제1장 국토와 국민	1
제1절 지리	1
제2절 기후	7
제3절 행정구역	10
제4절 국민	13
제5절 민속	19
제6절 종교	27
제2장 역사	30
제1절 원시사회	30
제2절 고대사회	33
제3절 중세사회	38
제4절 근세사회	40
제5절 근대사회	43
제6절 현대사회	45
제3장 정치	48
제1절 국가	48
제2절 헌법	50
제3절 입법부	53
제4절 행정부	56
제5절 사법부	62
제6절 정당	67



제7절 외교	70
제8절 군사	76
제4장 경제	81
제1절 경제 발전 개관	81
제2절 산업구조	86
제3절 대기업	92
제5장 문학예술	96
제1절 문학	96
제2절 미술	111
제3절 음악	117
제4절 무용	120
제5절 연극	127
제6절 영화	133
제6장 교육문화	137
제1절 교육	137
제2절 과학기술	143
제3절 스포츠	147
제4절 언론출판	150
제5절 문화시설	152
제7장 한국의 세계적 유산	156
제1절 세계유산	156
제2절 세계무형유산	163
제3절 세계기록유산	170
부록: 단어색인	175



제1장 국토와 국민

제1절 지리



1. 위치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를 잡은 조선반도 남반부, 북위 33~38°, 동경 124~132° 사이의 북반구 중위도(中緯度)에 위치해 있다.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인접해 있고, 서쪽은 황해(黃海)를 사이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데 제일 짧은 거리는 190킬로미터이다. 동쪽은 동해(東海)를 사이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부산에서 일본까지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180킬로미터이다. 남쪽은 남해(南海)의 다도해(多島海)로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면적(面積)은 99,39381평방킬로미터로 약 조선반도 면적의 45%를 차지한다.



2. 지형

조선반도는 산지(山地)와 구릉(丘陵)이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조선반도의 지형의 특성은 전체적으로 북쪽과 동쪽이 높고 남쪽과 서쪽이 낮아 큰 하천(河川)의 대부분은 서쪽의 황해와 남쪽의 남해로 흘러 들어간다. 하천은 완만(緩慢)한 구릉과 평탄(平坦)한 평야를 지나 흐르기 때문에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구불구불하다.

동해안은 해안선(海岸線)이 비교적 단조로우나 작은 만(灣)들이 적지 않다. 동해는 수심이 해안에서 갑자기 깊어진다. 바닷물이 맑고 곳곳에 넓은 모래톱과 해안절벽(海岸絶壁)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황해안과 남해안은 크고 작은 반도, 만, 섬들이 많아서 해안선이 매우 복잡(复杂)하다. 특히 남서해안 일대는 섬이 많아 다도해라 부른다. 황해와 남해는 대부분 수심(水深)이 얕다. 황해 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다. 썰물 때에는 넓은 간석지가 드러나 배가 드나드는 데 불편하다.



3. 산맥

한국의 주요(主要)한 산맥은 아래와 같다.

◎ 태백산맥(太白山脉)

태백산맥은 조선반도에서 제일 긴 산맥이다. 태백산맥은 강원도(江原道) 황룡산(黄龙山)으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경상북도와 강원도 사이의 태백산(太白山)까지 뻗은 산맥으로 길이가 600Km이고 높이는 해발 1000m이다. 태백산맥에는 조선 경내에 있는 금강산(金刚山), 한국 경내에 있는 설악산(雪岳山), 오대산(五台山) 등의 봉우리가 있다.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은 모두 태백산맥에서 뻗어나간 지맥(支脉)이다.

◎ 차령산맥(车领山脉)

차령산맥은 태백산맥 오대산에서 서남쪽으로 충청남도 차도령(车道岭)까지 뻗어나간다. 산세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길이는 약 200Km이다.

◎ 소백산맥(小白山脉)

소백산맥은 태백산맥 남쪽의 태백산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전라남도 여수(丽水) 반도까지 뻗어나가는데 길이는 350Km이다.

◎ 광주산맥(广州山脉)

광주산맥은 태백산맥의 지맥으로 태백산맥의 북에서 발원(发源)하여 서남으로 경기도 광주(广州)까지 뻗어 나갔다. 이 산맥의 해발고도는 500~1,200m이다.



4. 산봉우리

한국의 주요한 산봉우리는 아래와 같다.

◎ 설악산(雪岳山)

강원도에 위치해 있는 설악산은 태백산맥의 최고봉으로 해발고도가 1,708m이다. 산정(山顶)에 반년 가량 눈이 쌓여 있기에 설악산이라 한다. 설악산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의 동쪽을 외설악(外雪岳)이라 하고 서쪽을 내설악(內雪岳)이라 한다. 내설악에 많은 폭포와 높이 있다.

◎ 오대산(五台山)

오대산은 강원도 평창군, 홍천군, 강릉시에 걸쳐 있는 산이다. 오대산은 태백산맥에 있는 높은 봉우리 가운데 하나로 높이가 1563m이다. 오대산은 국립공원(國立公園)의 하나로 경치가 아름답다.

◎ 태백산(太白山)

태백산은 태백산맥 남쪽 끝인 강원도 삼척군(三陟郡)과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의 경계(境界)에 위치해 있는데 해발고도가 1,561m이다. 산꼭대기에 남북(南北)의 길이가 1.5km, 동서의 너비가 200~500m의 고원이 있다. 산주위에 심산유곡이 있고 남쪽기슭이 낙동강(洛東江) 발원지(发源地)이다.

◎ 지리산(智異山)

지리산은 소백산맥의 최고봉으로 주봉(主峰)인 천왕봉(天王峰)은 해발고도가 1,915m이며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경계에 위치해 있다. 이 산은 한국경내에서 한라산 다음의 높은 산으로 산에는 한온대(寒溫帶), 온대(溫帶), 아열대(亞熱帶) 식물들이 무성하고 삼림에는 보귀(寶貴)한 약재와 진귀(珍貴)한 야생동물들이 있다.

◎ 속리산(俗離山)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소금강산(小金剛山) 혹은 구봉산(九峰山)이라고도 부른다. 속리산은 경치가 수려(秀麗)하여 한반도 팔경(八景)의 하나로 되고 있다. 속리산에는 9개 산봉우리가 있는데 제일 높은 산봉우리의 해발고도가 1,058m이다.

◎ 한라산(漢拏山)

제주도 중부에 위치해 있는 한라산은 해발고도가 1,950m로 한국경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한라산은 휴화산으로 꼭대기에 직경(直徑) 30m, 깊이 6m의 화산호수인 백록담(白鹿潭)이 있다. 산에는 아열대, 온대, 아한대(亞寒帶)의 식물과 진귀한 야생동물들이 있다.



5. 고원

한국의 주요한 고원은 아래와 같다.

◎ 영서고원(岭西高原)

영서고원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광주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870m이고 면적은 4,240km²이다.

◎ 진안고원(镇安高原)

전라남도 진안군(镇安郡)에 위치해 있다. 남북의 길이는 40km, 동서의 너비는 10~20km, 평균 해발고도는 400~500m이다.



6. 평원

한국의 주요한 평원은 아래와 같다.

◎ 평택평원(平泽平原)

평택평원은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평택(平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평원이다. 면적이 200km²이고 토지(土地)가 비옥하다.

◎ 예당평원(礼唐平原)

예당평원은 충청남도 북부의 삽교천(插桥川) 등 세 갈래 강의 충적(冲积)으로 형성된 충적평원이다. 면적이 280km²이고 지세가 평탄(平坦)하고 서쪽이 바다에 닿아 있다.

◎ 내포평원(内浦平原)

내포평원은 금강(锦江)하류의 충적평원으로 면적이 250km²이다. 남쪽이 호남(湖南)평원과 이어져 있고 동쪽이 대전(大田)과 인접해 있다.

◎ 호남평원(湖南平原)

호남평원은 전라북도 서부에 위치해 있는 평원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큰 평원이다. 면적이 500여km²이고 토지가 비옥(肥沃)하다.

◎ 전남평원(全南平原)

전남평원은 전라남도 영산강(荣山江)연안의 충적평원으로 면적이 300km²이고 토지가 비옥하고 수원(水源)이 풍부하여 관개(灌溉)에 이롭다.

◎ 김해평원(金海平原)

김해평원은 낙동강하류의 충적평원으로 면적이 200km²이다.



7. 도서(岛屿)

한국에는 2,960개의 도서가 있다. 사람이 사는 섬이 705개이고 나머지는 무인도(无人岛)이다. 한국의 주요한 섬은 아래와 같다.

◎ 제주도(济州岛)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큰 섬으로 반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총면적이 1,826km²으로 동서의 길이가 73km, 남북의 너비가 41km이다.

◎ 거제도(巨济岛)

거제도는 경상남도 남해안 진해만(镇海湾) 남쪽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374.9km²으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 진도(珍岛)

진도는 전라남도 진도군(珍岛郡)에 속하는 섬으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이 353.8km²이고 주위에 137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진도와 함께 진도군을 이루었다.

◎ 강화도(江华岛)

강화도는 경기도 강화만(江华湾)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이 300km²이다.

◎ 남해도(南海岛)

남해도는 경상남도 서남쪽 남해군에 속하는 섬으로 서쪽이 여수만(丽水湾)과 인접해 있다. 면적이 298.4km²으로서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

◎ 안면도(安眠岛)

충청남도 서해안 태안반도(泰安半岛) 남쪽에 위치해 있다. 남북으로 뻗어 장방형으로 된 섬으로 면적이 105.4km²이다.

◎ 완도(莞岛)

전라남도 남쪽에 위치해 있다. 주위에 130여 개의 작은 섬과 함께 완도군(莞岛郡)을 이루고 있는데 면적이 85.3km²이다.

◎ 울릉도(郁陵岛)

한국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경상북도 울릉군(郁陵郡)에 속한다. 육지(陆地)와의 거리가 130km이고 면적이 72.9km²이다.

◎ 돌산도(突山島)

전라남도 여수반도(麗水半島)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면적이 68.9km²이다.



8. 강

한국의 주요한 강들은 서부나 남부로 흘러 황해와 남해로 흘러 들어간다. 한국의 주요한 강은 아래와 같다.

◎ 낙동강(洛東江)

낙동강은 한국에서 제일 큰 강으로 태백산 북부에 위치한 함백산(咸白山)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경상남북도를 경유(經由)하여 부산(釜山) 서쪽에서 조선해협으로 흘러든다. 길이가 521.5km이다.

◎ 한강(漢江)

한강은 오대산(五台山)에서 발원한다. 서울 동쪽에서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北漢江)과 합류하고 서울을 지난 다음 임진강(臨津江)과 합류하여 강화만(江華灣)으로 흘러든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강으로 길이가 481.7km이다.

◎ 금강(錦江)

전라북도 장수군(長水郡) 사두봉(蛇頭峰)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간다. 한국에서 세 번째 큰 강으로 길이가 395.9km이다.



9. 식물

조선반도의 식물종류는 매우 풍부하여 3,300여 종에 달한다. 그리고 식물종류의 밀도(密度)도 비슷한 위도(緯度)의 유럽나라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매우 높다.

조선반도의 식물분포는 아한대(亞寒帶) 침엽수림대(針葉樹林帶), 온대(溫帶) 낙엽 활엽수림대(闊葉樹林帶), 아열대(亞熱帶) 상록수림대(常綠樹林帶)로 나뉜다.

아한대 침엽수는 주요하게 북부의 조선 경내에 분포되어 있다. 한국 경내에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의 해발고도가 1,000m이상 되는 높은 산에 분포되어 있다.

온대 낙엽활엽수는 연평균 기온(氣溫)이 5°~14°사이의 한국의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아열대 상록수는 연평균 기온이 14°이상 되는 남부해안 지대와 제주도, 울릉도 등의 도서에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는 해발고도가 500m이하의 지대에, 완도는 해

발고도가 300m이하의 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식물의 수직(垂直) 분포가 가장 선명한 곳이 한라산이다. 한라산 남쪽 기슭은 해발고도가 600m, 북쪽 기슭은 해발고도가 400m이하에 아열대 상록수가 분포되어 있고, 해발고도가 600~1,500m사이에 온대 낙엽활엽수가 분포되어 있고, 해발고도가 1,500m이상에 아한대 침엽수가 분포되어 있다.



10. 동물

조선반도에는 많은 동물(動物)들이 서식(栖息)하고 있다. 그 중에는 조류(鳥類) 379종(種), 포유(哺乳)동물 78종, 파행(爬行)동물 25종, 양서(兩栖)동물 14종, 담수(淡水) 물고기 130종, 절지(節肢)동물 수 백 종이 있다.

동물의 분포는 지세가 높은 지구와 지세가 낮은 지구가 차이가 있다. 지세가 높은 산지와 고원 지역에는 사슴, 노루, 곰, 범,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담비, 여우, 너구리, 토끼, 다람쥐, 박쥐, 스라소니, 족제비, 꿩 등이 있고 지세가 낮고 기온이 따뜻한 중부와 남부 지역에는 들쥐, 딱따구리 등이 있다.

제2절 기후

조선반도는 중위도의 온대 기후(氣候) 지역에 속하지만, 거대한 아시아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시베리아에서 발생(發生)하는 기단(氣團)①과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독특(獨特)한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는 한랭(寒冷)하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메마른 북서(北西) 계절풍이 불어와서 춥고 강수량이 적다. 반면에, 여름에는 열대 해양(海洋)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 남동계절풍 또는 남서계절풍이 불어와서

① 기단(氣團): 기단이란 성질이 일정한 공기(空氣)의 덩어리이다. 따라서 기단은 주로 넓은 대륙 위나 해양 위에서 발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의 기단으로는 시베리아대륙에서 형성되는 시베리아기단(한랭하고 건조하다), 오호츠크 해에서 형성되는 오호츠크해기단(한랭하고 습하다), 중국남부 대륙에서 형성되는 장강기단(온난하고 건조하다), 북태평양에서 형성되는 북태평양기단(고온이고 습하다), 적도에서 형성된 적도기단(고온이고 습하다)이 있다.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한국은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봄은 3월경부터 시작(始作)되어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 여름은 남동계절풍이 강해지는 6월경부터 시작된다. 6월 하순경에는 장마가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는데, 집중호우(集中豪雨)와 태풍이 풍수해(風水害)를 일으키기도 한다. 장마 후에는 30℃를 넘는 한여름 무더위가 나타난다. 가을은 날씨가 맑고 습도가 낮아 1년 중 인간생활에 가장 쾌적(快適)한 계절이다. 겨울은 북서계절풍이 강해지는 11월경부터 시작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져 북서계절풍이 불 때에는 기온이 내려간다. 4계절의 길이는 같지 않다. 여름과 겨울이 길고 봄과 가을이 짧다.



1. 기온의 특색

한국의 기온은 아래의 몇 가지 특색(特色)이 있다.

1) 남북이 기온 차(差)가 있다.

조선반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위도의 차가 10°나 된다. 그러므로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춥다. 연평균(年平均) 기온은 남쪽의 제주가 14.7℃, 중부의 서울이 11.1℃, 북부에 있는 개마고원 북단의 중강진(中江鎭)이 3.9℃로서 남북차는 10℃에 달한다.

2) 동서가 기온차가 있다.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하여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이는 동쪽에 위치한 태백산맥이 북서풍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위도의 인천과 강릉을 비교하면 8월 평균기온은 인천이 25.1℃, 강릉이 24.3℃, 1월 평균기온은 인천이 -4.0℃, 강릉이 -1.0℃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더 두드러진다.

3) 여름이 무덥고 겨울이 춥다.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8~15℃로 생활하기에 알맞다. 그러나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매우 추워서, 한서(寒暑)의 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색을 잘 나타낸다. 8월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19~27℃이다. 그러나 제일 추운 1월에는 평균 기온이 -8℃~7℃이다.

4) 겨울 기온이 삼한사온(三寒四溫)이다.

한국에서 겨울 기후의 특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삼한사온^① 현상이다. 이는 북서계절풍의 강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즉 겨울철 기온은 대체로 7~10일 주기로 물러오는 찬 공기의 흐름에 의해 승강현상이 되풀이된다. 찬 공기의 흐름은 시베리아 기단의 성쇠(盛衰)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發達)하여 남쪽으로 확장되면 한반도는 한파에 휩싸여 기온이 급격히 하강(下降)한다. 고기압이 약화(弱化)되면 중국 내륙으로부터 이동성 고기압이나 때로는 저기압이 동진(東進)해온다.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할 때는 엄동(嚴冬) 중의 봄 날씨가 되기도 하며 저기압이 통과할 때에는 눈 또는 비를 내린다.



2. 강수(降水)의 특색

조선반도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나 아래와 같은 특색이 있다.

1) 지역에 따라 다르다.

연강수량(年降水量)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섬진강 유역과 남해안 일대는 1,400~1,500mm, 제주도는 1,400~1,800mm, 울릉도는 1,400~1,800mm, 한강 중류와 상류 일대는 1,200mm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고, 낙동강 중, 상류, 서해연안 도서 지방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다.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강수량이 적어 북부가 800~900mm이다.

2) 계절에 따라 다르다.

강수의 또 다른 특색의 하나는 계절에 따라 다른 점이다. 연강수량의 70%가 6~9월 사이의 4개월 동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도 7월 강수량이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이 기간에 장마가 지는 경우도 있다. 장마철의 시작은 6월 24일경이나 이른 해에는 6월 초순, 늦은 해에는 7월까지 늦춰진다. 어떤 해에는 장마를

① 삼한사온(三寒四溫): 삼한사온은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하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북부지방 겨울날씨의 특징이다. 대륙고기압의 확장과 이동성 고기압의 통과 주기가 7일이라는 것으로, 실제 주기는 약간 달라지기도 한다.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남쪽의 저위도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춥다. 즉, 3한에 해당된다. 또 따뜻한 공기가 다시 쌓일 때까지의 기간은 4일이 걸리는데 이때가 4온이 된다.

거치지 않은 채 삼복더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겨울철에는 비보다는 눈이 많다. 울릉도는 한국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내륙에서는 태백산맥의 산간지방과 소백산맥의 산간지방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무상기간(无霜期间)은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짧고 해안지방에서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짧으며, 동해안지방보다 서해안지방이 짧다.



3. 기압과 바람

한국의 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지배(支配)를 받는 겨울철에 가장 높고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낮다. 바람은 기압으로 나타나는 공기의 이동 상태이므로 계절에 따른 기압 배치(配置)가 바람을 결정한다.

한국은 겨울철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 또는 남서풍이 분다. 이는 겨울철의 기압이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 시베리아 고기압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려오기 때문이다. 여름철의 기압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올라오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부아시아의 기후를 지배하는 기단으로는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있다. 그 밖에도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 중국의 장강(长江) 기단과 초여름에 형성되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고 태풍을 몰아오는 적도기단이 있다.

제3절 행정구역

한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하나의 특별시(特別市), 6개 광역시(廣域市), 하나의 특별자치시, 8개 도(道), 하나의 특별자치도로 나뉜다. 이상의 17개 행정구역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17개 행정구역은 다시 자치구, 자치시, 군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자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산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읍(邑), 면(面), 동(洞), 리(里), 통(統) 등의 비자치 구역으로 나뉜다. 한국의 도는 중국의 성(省)에, 군(郡)은 현(縣)에, 면(面)은 향(鄉)에, 읍(邑)은 진(鎭)에, 이(里)는 촌(村)에 상당하다. 대도시는 몇 개의 구(區)로 나뉘고 구가 몇 개의 동(洞)으로 나뉘는데

동은 중국의 가도(街道)에 상당하다.

◎ 서울특별시(首尔特別市)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면서 제일 큰 도시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서울의 면적은 605.33km²으로 국토면적의 0.6%를 차지한다. 인구(人口)는 약 1,100만 명(2010년)으로 한국 인구 총수(總數)의 22%를 차지한다. 인구 밀도는 매 평방킬로미터에 17,100여명으로 한국 인구 평균밀도의 34.6배이다. 한국의 25% 이상의 기업, 금융기관, 보험기구, 대학 등이 서울에 있다. 그리고 서울에는 많은 명승고적과 현대적인 문화, 체육 시설들이 있다.

◎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해 있는 부산광역시는 태평양 연안의 저명한 항구도시이다. 총면적이 763.46km²으로 국토면적의 0.8%를 차지하고 인구는 359만 6천명(2008년)이다. 부산은 한국에서 제일 큰 무역항구이고 두 번째로 큰 공업, 상업 도시이다.

◎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

대구광역시는 한반도 동남부 대구분지의 중앙(中央), 낙동강과 금호강(琴湖江)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884.07km²으로 국토 면적의 0.9%를 차지하고, 인구는 250만 9187명(2009년)이다. 대구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중간 요지(要地)이다.

◎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는 한반도 중서부 인천반도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1027.01km²으로 국토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인구는 275만 8431명(2009년)이다. 인천은 한국 서해안에서 제일 큰 항구이면서 공업도시이다.

◎ 광주광역시(光州廣域市)

광주광역시는 한반도서남부 전남평원과 남령산지(南嶺山地)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501.25km²으로 국토면적의 0.5%를 차지하고, 인구는 1445.828명(2009년)이다. 광주는 호남(湖南)지구에서 제일 큰 도시이다.

◎ 대전광역시(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는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539.84km²으로 국토면적의 0.5%를 차지하고, 인구는 150만여 명(2010년)이다. 한국의 중부에 위치해 있는 대전은 한국 교통의 중추(中樞)로 철도와 고속도로의 교차점(交叉點)이다.

◎ 울산광역시(蔚山广域市)

울산광역시는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1057km²으로 국토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인구는 112만여 명(2009년)이다.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는 울산은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교통요지이며 한국의 공업도시이다.

◎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别自治市)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면적은 465.23km²이고 인구는 110,377명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국토 균형(均衡)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의 과밀화(過密化)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하였다. 서울과 과천에 분산되어 있던 정부 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공주시,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청원군, 북쪽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한다.

◎ 경기도(京畿道)

경기도는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서쪽이 황해에 닿아있다. 면적이 10,136.16km²으로 국토면적의 10.2%를 차지하고, 인구는 1153만여 명(2010년)이다. 경기도 도청(道厅)소재지는 수원(水原)이다.

◎ 강원도(江原道)

강원도는 한반도 동부에 위치해 있는데 동쪽이 동해에 닿아있다. 면적이 16,873.91km²으로 국토면적의 16.7%를 차지하고, 인구는 152만여 명(2008년)이다. 강원도 도청소재지는 춘천(春川)이다.

◎ 충청북도(忠清北道)

충청북도는 한반도 중부에서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닿지 않은 내륙 도(道)이다. 면적이 7,431.50km²으로 국토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인구는 150만여 명(2007년)이다. 충청북도 도청소재지는 청주(淸州)이다.

◎ 충청남도(忠清南道)

충청남도는 한반도 중부의 서남쪽 황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면적이 8,598km²으로 국토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인구는 202만여 명(2008년)이다. 충청남도 도청은 대전광역시에 있다.

◎ 전라북도(全罗北道)

전라북도는 한반도 서남쪽 황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면적이 8,050.94km²으로 국토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인구는 187만여 명(2008년)이다. 전라북도 도청은 전주(全州)에 있다.